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	

보도 일시	2022. 9. 1.(목) 06:00 < 9.1.(목) 석간 >	배포 일시	2022. 8. 31.(수)
담당 부서	통상정책국 구주통상과	책임자	과 장 서성태 (044-203-5660)
		담당자	사무관 정다연 (044-203-5666)

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, 영국 무역특사 면담

- 한-영 양자 협력 강화방안 논의,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 -

- 美 인플레감축법 관련 의견교환, 英 철강세이프가드의 조속한 종료 당부 -

□ **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**은 9.1일(목) 9시 30분, 서울(포시즌즈 호텔)에서 **존 위팅데일(John Whittingdale) 영국 한국담당 무역특사**(Trade Envoy)와 만나 **양국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**하였다.

* 영국의 무역특사는 현직의원 중에서 지명되며, 총리를 대신하여 담당국가와 무역, 투자, 저탄소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특별임무를 부여받은 인사 (現 32명)

○ 이번 면담은 **위팅데일 무역특사의 임명**('22.5월) **이후 첫 한국 방문을 계기**로 성사되었다.

□ 이날 면담에서 안 본부장은 지난 6월 한-영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「한-영 양자 프레임워크」를 바탕으로 **기후변화, 디지털통상, 공급망 분야에서 양국이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**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.

❶ **(기후변화)** 탄소중립 달성, 그린시장 활성화를 위해 **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영국과 앞으로 그린통상 관련 다양한 논의의 장에서 공조를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,**

❷ **(디지털통상)** 수준 높은 디지털 규범 필요성에 대한 양측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향후 **한-영 FTA 내 디지털 규범의 업그레이드를 제안,**

❸ **(공급망)** 지난 2월 체결한 **한-영 핵심공급망 MOU를 바탕으로 실무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과제를 발굴**할 수 있기를 기대

○ 아울러 **연내 한-영 FTA 개선협상에 대한 본격 논의가 개시될 수 있기를 희망**한다고 언급하였다

□ 한편, 안 본부장은 최근 미국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감축법(IRA)의 **북미산 전기차를 우대하는 차별적 요소에 대한 우려를 공유**하며, **한·영간에도 향후 지속적으로 협의**해 나갈 것을 언급하였고,

○ 최근 **영국이 철강 세이프가드를 '24년까지로 연장한 것에 우려를** 표명하고 양국 교역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**동 조치의 조속한 종료를 당부**하였다.

□ 마지막으로 안 본부장은 **2030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에서 영국이 한국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**하였다. 끝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